

전북 제조업 생산↓... 소비·건설 부진 속 수출 보합

지역 제조업 생산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역 경기의 회복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와 건설투자 역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은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2025년 12월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 11월(-4.0%)에 이어 두 달 연속 같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34.3%), 음료(-20.8%), 전기장비(-11.9%) 등의 부진이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반면 1차금속(16.1%), 비금속광물(15.0%), 화학제품(4.1%) 등 일부 업종은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하며 전월(+5.7%)에 이어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재고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재고율은 134.8%로 전월(142.6%)보다 7.8%포인트 상승해 재고 부담이 이어졌다.

민간소비는 부진이 계속됐다. 12월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했고, 특히 대형마트 판매는 13.6% 줄었다. 반면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3천5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하며 전월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건설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12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37.9% 줄었고, 건축허가면적도 51.3% 감소했다. 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2,597호로 전월보다 311호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546호로 17호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일부 개선 조짐을 보였다. 12월 기계류 수입액은 6,19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8.4%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 설비투자 실행 B2I는 93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은 5억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하며 사실상 보합을 기록했다. 동제품(+51.0%), 농기계(+46.2%)는 증가했으나 농약·의약품(-39.4%), 자동차(-22.3%) 등이 줄었다. 수입은 4억7천만 달러로 9.1%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4,5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고용 상황은 악화됐다. 12월 취업자수는 91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감소가 두

드러졌다. 고용률은 59.1%로 0.7%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8.0%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2026년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물가도 2.5% 올랐다.

주택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기준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9.7%, 전월세 거래량은 38.2% 증가했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는 엇갈렸다. 1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2.2로 상승했으나 비제조업은 78.9로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12.0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오르며 낙관적 수준을 유지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삼천신협, 경영 성과 '우수'

신협중앙회 조합 종합경영평가서 전국 2군 대상·전북 종합대상

전주삼천신협(이사장 최태일)이 2025년 신협중앙회 조합 종합경영평가에서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2군 대상'과 '전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전주시 삼천동 성당에서 열린 제33차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신협중앙회 강연수 본부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전주삼천신협은 2019년 최태일 이사장 취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총자산은 2019년 1,354억 원에서 2025년 3,200억 원으로 약 136%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1.67%로 안정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신협 어부바 원어민교실'을 비롯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행복한 집 프로젝트', 겨울철 난방용품 지원 활동인 '온세상 나눔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삼천신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최태일 이사장은 "이번 전국 2군 대상과 전북 종합대상 수상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설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에서”

전북중기청, 장보기 행사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 맞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2025년 도내에 대해 확충된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 맞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전북중기청은 지난 2월 9일 전주 모래내골목형상점가와 전주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명절 선수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

취했다. 또한 상점가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12일에는 김제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14개 유관기관과 합동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 등 도내 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해 명절 물품을 구매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와 별도로 전북지방환경청, 전북신용보증재단 등도 자체 일정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소비 촉진에 동참했다.

전북중기청은 이날 장보기 행사를 통해 마련한 물품을 김제시 소재 노인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활동이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으로 이어지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설 맞아 취약계층에 '福 꾸러미'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11일 공단 본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福 꾸러미' 나눔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전북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아동·청소년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각 가정에 식료품 13여 종으로 구성된 '福 꾸러미'를 전달해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꾸러미에 담긴 물품은 공단의 '1사 1시장'인 전주 신중앙시장과 전북 지역 업체 제품으로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다. 복 꾸러



미는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단 장애인지원실 직원들로 구성된 목공 재능기부 봉사단이 친환경 원목 책상 10개를 제작해 지역 장애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취지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샘골농협·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업무협약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중),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대표 한영석)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주 생산·판로 확대를 위한 3자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전북 정읍에 기반을 둔 전통주 전문 양조업체로, 찹쌀을 원료로 한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다. 누룩 제조부터 발효·숙성까지 전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다. 대표 약주 제품인 '백수 환동주'와 '도한 청명주'는 농협이 주관하는 'K-리이스퀘스타' 우리쌀(전통주 부문) 플랫폼에서 2년 연속 입상하



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샘골농협은 할배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업과 가공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제7기 생생톡 고객자문단' 발대식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12일 본점 9층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7기 생생톡 고객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생생톡 고객자문단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의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고객자문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오상근 기자



이들은 전북은행의 상품 개발과 마케팅 이벤트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자문단의 제안을 경영에 적극 반영해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한전 군산지사,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한국전력 군산지사(지사장 박상수, 노조위원장 곽동훈)는 지난 11일 군산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지사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모아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마련



해 복지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